

살아난 슈퍼루키 KIA 김도영...KIA '연패·악재 속 희망'

시범경기 타율 1위 올랐으나 시즌 초반부터 고전 이어져
최근 살아난 방망이...팀 연패 중 타율 0.400에 홈런 두 방

KIA 타이거즈에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 까지 이어진 '수도권 원정 9연전'은 악몽이나 다름없었다.

잠실, 고척, 인천을 거치며 두산 베어스, 키움 히어로즈, SSG 랜더스를 차례로 만난 KIA는 9경기에서 단 2승을 거두는데 그쳤다. 6월 26일 잠실 두산전부터 이달 3일 인천 SSG전까지 내리 패배하면서 7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단지 연패만이 KIA에 우울함을 안긴 것은 아니다. 부상 악재까지 만났다.

KIA 타선에서 고군분투하던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올 시즌 타율 0.332(304타수 101안타) 11홈런 46타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924로 활약하던 소크라테스는 지난 2일 인천 SSG전에서 김광현의 직구에 코와 오른쪽 광대 사이를 맞았다.

출혈이 심했던 소크라테스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했다. 컴퓨터 단층(CT) 촬영 결과 코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은 소크라테스는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다.

우울한 KIA에 작은 위안을 안긴 것이 시즌 내내 부진을 거듭하던 김도영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고교 시절 정교한 타격과 장타력, 빠른 발,

안정된 수비 능력으로 주목을 받은 김도영은 202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김도영은 올해 시범경기에서 타율 0.432(44타수 19안타)를 기록하며 시범경기 타율 1위를 차지, 정규시즌 활약을 기대케했다.

하지만 막상 정규시즌 개막 후에는 부진을 이어갔다. 시범경기와 달리 복잡한 상대 배터리의 불배합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범경기 활약에 힘입어 개막 이후 한 달 동안 주전으로 기회를 받은 김도영은 4월에 나선 22경기에서 타율 0.179(84타수 15안타)에 머물렀다. 시범경기에서의 모습을 기대하며 꾸준히 기회를 주던 김중국 감독은 결국 주전 3루수를 김도영에서 류지혁으로 바꿨다.

이후 김도영은 백업 내야수로 뛰었다. 대부분의 경기에 교체 출전한 김도영은 5월 한 달간 19경기에서 42타석만 소화했다. 5월 월간 타율도 0.243(37타수 9안타)로 기대를 밑돌기는 마찬가지였다.

6월 들어서는 17경기에서 15타석을 소화하는데 그쳤다. 6월 중순까지 여전히 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최근 김도영의 방망이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22일 광주 롯데 자이언츠전부터 최근 10경기에서 김도영은 타율 0.308(13

타수 4안타)를 기록했다. 팀이 7연패를 한 기간 동안에는 타율 0.400(10타수 4안타) 출루율 0.538, 장타율 1.000을 기록했다.

김도영은 지난 1일 인천 SSG전에 대수비로 출전해 데뷔 첫 홈런을 작렬했다. 7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구원 최민준의 7구째 슬라이더를 밀어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이를 뒤에도 김도영은 대포를 가동했다. 3일 SSG전에서 팀이 1-3으로 뒤진 8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추격의 솔로 홈런을 날렸다. 이때도 서동민의 주무기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홈런으로 연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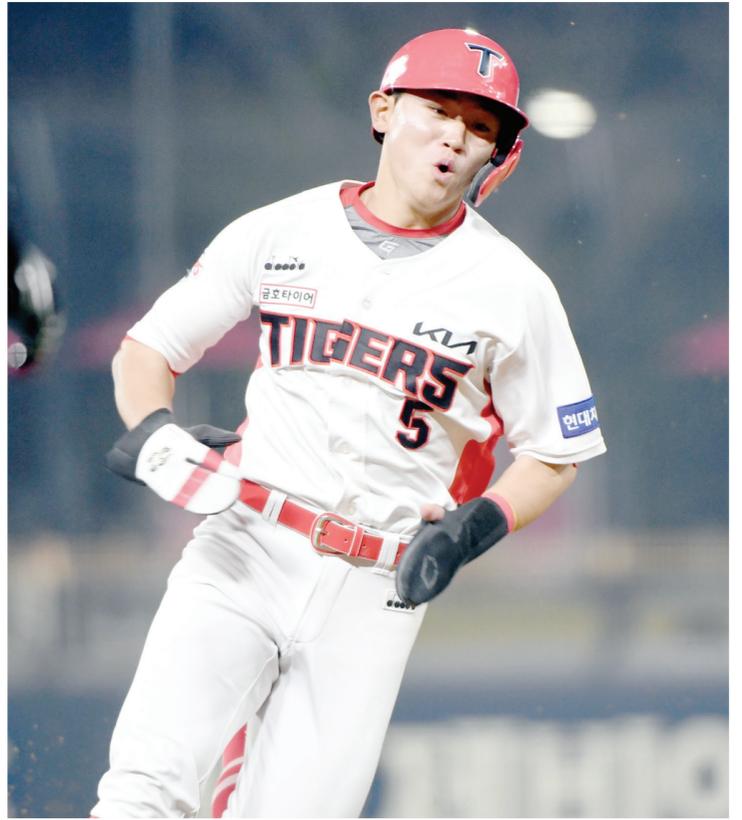
KIA는 5월 한 달 동안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타선이 차갑게 식으면서 6월에 주춤했다. KIA의 5월 월간 팀 타율은 0.284로 1위였지만, 6월에는 0.250으로 9위에 머물렀다.

소크라테스와 함께 타선을 이끌던 황대인의 타격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인 것이 아쉬웠다.

여기에 6월에도 월간 타율 0.344를 기록하며 고군분투하던 소크라테스마저 부상으로 이탈해 KIA의 고심은 깊어졌다. 소크라테스는 이르면 5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KIA 구단은 소크라테스가 회복하는데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감을 잡은 슈퍼루키 김도영이 살아난 모습을 이어간다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KIA 타선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KIA는 5~7일 KT 위즈와의 홈 3연전에서 연패 탈출을 노린다.

뉴스스



순천대, 호남지역 국·공립대학 교직원 축구대회 우승 1회 대회 우승 이후 다시 한번 우승기 흔들며 대학의 기상 보여줘

국립 순천대학교 교직원 축구동호회(회장 조전호, 대외협력실장)가 지난 1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30회 호남지역 국·공립대 교직원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대회는 순천대를 비롯해 개최 대학인 전북대와 군산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전남대 등 호남권 6개 팀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조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천대는 예선에서 전북대·목포대가 속한 A조로 편성되어 1승 1패 조2위로 본선에 진출하였다. 준결승전에서 B조 1위 전남대를 승부차기로 꺾고 결승전에 오른 순천대는 예선전에서 패하였던 전북대를 상대로 일진일퇴를 거듭한 끝에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축구동호회 허남훈(35, 총무과) 감독은 "여러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매주 열리는 연습 경기에 빠지지 않고 참여

해준 선발 선수단과 후보 선수단의 열정으로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2년 전에 친환경 인조 잔디 구장으로 새 단장을 마친 종합운동장도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 구성원이 단결되어 여러 분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대표로 우승 소감을 전했다.

순천대 교직원 총장은 "결과를 떠나 스스로에게 박수를 칠 수 있었던 진정한 승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회에 임한 교직원들이 우수한 경기력과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 몹시 자랑스럽다."면서 "개최 1회 대회 우승 후 30여 년 만에 다시 우승기를 흔들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더욱 뜻깊고,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한편, 호남지역 국·공립대학교 축구대회는 교직원의 화합과 체력증진, 정보교류 등을 통해 대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마다 개최되는 스포츠 축제로, 다음 대회는 전남대학교가 개최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손흥민의 토트넘 온다...한여름 한국 찾았던 클럽들

'국민 클럽' 토트넘, 13일·16일 두 차례 방한 경기...2019년 여름 유벤투스 방한 때 '호날두 노쇼' 논란

한국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30)이 붉은색이 아닌 토트넘 홋스퍼의 흰색 유니폼을 입고 국내 축구 팬들 앞에 선다. 토트넘의 이번 방한으로 한여름 한국을 찾았던 유럽 축구 클럽들의 방한 역사가 되돌아왔다.

◆'국민 클럽' 토트넘, '손흥민의 나라'에 든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선수단이 한국시간으로 10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2022-2023시즌을 앞두고 한국에서 프리시즌 투어에 나선 토트넘은 1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붙는다. K리그1 12개 구단에서 각 2명씩 리그를 대표해 모이는 '팀 K리그'는 지난 시즌 우승팀 전북 현대 김상식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또 16일 오후 8시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세비야(스페인)와 친선경기를 이어간다.

◆한국을 찾았던 호나우지뉴의 바르셀로나, 무리뉴의 첼시

축구 슈퍼스타들의 방한 경기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포르투갈의 에우제비우, 브라질의 펠레 등이 소속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한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당시엔 프로축구가 출범하기 전이라 한국 대표팀과 붙어 지금의 프리시즌 방한 경기와는 성격이 조금 달랐다. 1995년 보카 주니어스에서 뛰던 디에고 마라도나도 한국 대표팀과 경기했다.

한여름 프리시즌 기간 유럽 클럽들이 K리그 구단과 본격적으로 친선경기를 갖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다. 한일월드컵의 성공으로 한국 축구가 전 세계에 알려졌고, 2004년 '외계인' 호나우지뉴가 뛰던 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한국을 찾아 화제가 됐다. 셀과도 놀라웠는데, 당시 수원 삼성이 우르모브의 결승골로 바르셀로나를 1-0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1년 뒤인 2005년엔 조세 무리뉴 감독이 이끌던 첼시(잉글랜드)가 한국을 찾아 수원 삼성과 프리시즌 경기를 치렀다. 수위 차범근 감독과 당시 떠오르던 명장 무리뉴 감독과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비록 디에드로그바, 아이더 구드온센, 아르연 로번, 프랭크 램파드, 존 테리 등 핵심 선수들이 대거 빠진 방한 멤버였지만, 첼시는 조 폴, 데미언 더프 등을 앞세워 수위에 1-0 승리를 거뒀다.



◆'원조 국민클럽' 박지성의 맨유

'원조 국민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는 박지성이 뛴 당시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한국 투어에 나섰다. 2007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맨유와 FC서울의 경기엔 6만여 관중이 운집했고, 무려 4골이 터졌다. 맨유의 압승이었는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골 2도움으로 맨유의 4골 중 3골을 책임졌다. 또 웨인 루니와 박지성의 절친인 파트리스 에브라도 골 맛을 봤다. 다만, 무릎 부상을 입었던 박지성이 뛰지 못한 건 눈에 띄었다.

첫 방한 때 한국 팬들에 강한 인상을 남긴 맨유는 2009년 7월 또다시 한국을 찾았다.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은 맨유는 이번엔 서울을 상대로 3-2 진뎀승을 거뒀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로 이적한 호날두가 빠졌지만,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와 마이클 오언, 폴 스콧스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상암벌을 달렸다. 또 2년 전 경기에 뛰지 못했던 박지성은 후반 28분 교체로 나와 약 20분간 팬들 앞에 섰다.

◆'16분' 댄 메시와 '노쇼' 호날두...방한 경기의 그림자

축제가 됐던 프리시즌 해외 구단들의 방한 경기에 잡음이 들리기 시작한 건 2010년 두 번째로 한국을 찾았던 바르셀로나부터다. 호나우지뉴에서 리오넬 메시로 에이스가 바뀐 바르셀로나는 당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다. 펠레 가르디올라 현 맨체스터 시티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던 바르셀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층을 자랑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와 K리그 올스타 간 친선경기는 메시의 출전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마찰을 빚었다. 일부 주축 선수들이 대거

방한에서 제외된 데 이어 가르디올라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메시지를 출전시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황한 행사 주최 측에서 메시의 의무 출전 조항이 있다고 해명한 뒤, 경기 당일 새벽이 돼서야 메시가 나갈 수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떠난 팬심을 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2019년 7월 유벤투스의 방한은 바르셀로나 때보다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의 12년 만의 방한 경기로 관심을 모았으나, 국내 팬들의 열망에도 끝내 그라운드에서 나서지 않아 큰 실망만 남겼다. 애초 유벤투스 친선 경기 계약 조건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는 경기 끝날 때까지 벤치를 지켰다.

호날두는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전 예정됐던 팬 미팅과 사인회 행사에도 컨디션 조절 등을 이유로 불참해 팬들의 원망을 샀다. 결국 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여 팬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고, 일부 관중들은 '호날두 노쇼'를 두고 주취사를 행사 고소했다.

◆토트넘은 논란에 자유로울까

손흥민의 토트넘은 과거 방한 논란에서 자유로울까. 팬들이 원하는 건 손흥민, 케인 등 스타들의 출전 여부다. 또 일부 오픈 트레이닝 등이 예고됐는데, 여기서 얼마나 진심 어린 팬서비스를 보여줄지도 관건이다. 주최 측도 지난 유벤투스 방한 경기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손흥민의 고국에서 치르는 친선경기임을 고려할 때 핵심 선수들을 대거 제외하는 등의 선수단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진희, 세계랭킹 31계단 상승 '84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맥콜·모나파크 오픈에서 정상에 선 임진희(24)가 생애 처음으로 세계랭킹 10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임진희는 5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115위에서 31계단 오른 84위에 올랐다.

임진희의 개인 최고 랭킹이다. 그는 지난 3일 막을 내린 맥콜·모나파크 오픈에서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BC카드 환경 레이디스컵 우승에 이어 KLPGA 투어 통산 두 번째 우승이다.

지난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가 열리지 않아 상위권에 큰 변화는 없었다. 고진영이 1위를 유지한 가운데 호주 교포 선수 이민지가 2위를 지켰고, 벨리 코다(미국)가



뒤를 이었다. 교포 선수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아타야 티티쿨(태국)을 5위로 끌어내리고 4위로 올라섰다.

김효주는 한국 선수 중 두 번째로 높은 8위에 자리했다.